대표프로그램

# 검룡소의 물줄기를 따라서

| | |
|---|---|
| 활동장소 | 검룡소 |
| 소요시간 | 60 |
| 참가대상 | 생태관광 탐방객 |
| 참가인원 | 10명 |
| 운영자 | 자연환경해설사 임여영 |

**활동목표**
- 한강의 발원지이며 생명의 물줄기인 검룡소의 근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자

**준비물**
- 마이크, 핸드폰, 루페, 비상키트

**유의사항**
-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사항 지키기
- 지정된 탐방로 이용하기. 식물훼손 주의하기

| 단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도입 | • **해설사 소개** | 2분 |
| 전개 | • **검룡소 소개**<br>–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br>– 복류천과 포트홀<br>• **검룡소의 여름꽃 소개**<br>– 기린초<br>– 큰뱀무<br>– 여우오줌풀<br>– 짚신나물<br>• **세심탐방지원센터앞**<br>– 예약탐방제구간 소개<br>– 다래나무와개다래나무<br>– 다릅나무<br>– 생흔화석<br>• **검룡소의 전설** | 56분 |
| 마무리 | 검룡소의 여름을 기억하며, 내년에 꼭 다시 찾아와 줄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 | 2분 |

| | |
|---|---|
| 시나리오 | **· 해설사 소개**<br><br>안녕하세요?<br>저는 오늘 여러분을 검룡소 까지 안전하게 탐방안내를 맞게 된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임여영 입니다.<br>올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무척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씨 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생활이 많이 불편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서 이 힘든 고비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떨까요?<br>자 그럼 저와 함께 탐방을 시작 하실 텐데요 탐방하시는 동안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해 주시고 혹 불편한 곳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간단한 구급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br>그럼 뭉쳐진 근육들을 살짝 풀어주고 출발 할까요!<br>(몸풀기-)<br><br>**· 검룡소 소개**<br><br>이곳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북쪽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검룡소'<br>입니다. 여기 표지석을 보시면 '검룡소' 라고 쓰여 있죠.<br><br><br>여기서 검룡소의 '검' 자는 '검소할 검(儉)'자 를 쓰고 단군왕검의 '검' 자와도 같은 한자를 씁니다. 이 검자에는 검소하다는 뜻과 신령스럽다는 뜻이 함께 쓰여지고 있으며 용소는 용의 전설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검룡소는 신령스런 용이 사는 '소' 라고 생각 하시면서 탐방을 하시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br>이곳에서 검룡소 까지는 1.3km로 왕복 약 1시간 20분정도 소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검룡소에 도착하게 되면 이곳 검룡소에 얽힌 용의 전설도 들려 드리겠습니다.<br><br>**-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검룡소는 어떤 곳인가요?

네~ 한강의 발원지죠.
‘한강’ 하면 우리는 대부분 서울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데, 한강은 한반도의 젖줄이기도 하면서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젖줄이기도 하죠.
한강은 우리말에서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한가람'에서 비롯되었으며 여기서 '한’ 이란, ‘큰’ 다시 말해서 ‘크다’ 을 뜻하고, 가람은 ‘강’ 의 옛 말. 즉 '큰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한강의 시작점, 한강의 발원지인 바로 이곳이 검룡소입니다.
이곳 검룡소는 금대봉 기슭에 있는 제당굼샘 과 고목나무샘, 물골의 석간수와 예터굼 에서 솟아나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솟아나 흘러서 정선, 영월, 단양, 충주를 거쳐서 ‘남한강’ 으로 불리며 흐르다가 경기도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 에서 ‘북한강’ 과 만난 후, 우리나라 심장부에 흐르는 한강이 됩니다.

1987년 국립지리원에 의해서 최장 한강발원지로 선정되어 **2010년에 명승 제73호**로 지정된 검룡소는 지형과 지질학적으로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생대 퇴적암류를 보여주는 장소이며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서 지하에 동굴이 형성되는 ‘카르스트형’이 발달하여 학술적으로도 매우중요하기 때문에 ‘**강원도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 복류천**
이곳 검룡소는 하루 2천 톤 에서 3천 톤 가량의 지하수가 솟아 나와서 서해까지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가는데 지금 여러분의 왼쪽에 계곡을 보시면 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시나요?



잘 보이지 않죠? 분명 이곳은 한강의 발원지 이고 발원지라 함은 물이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가야 하는데 왜 ? 그 많은 양의 물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이유는 바로 이곳 검룡소는 석회암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 입구에서 해설해 드렸듯이 석회암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석회암지대인 이곳은 지하에서 석회암을 녹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하에 동굴이 형성되는 카르스트 지형이 형성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르던 물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점이라고 할지라도 물은 지하에 형성된 동굴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지하 통로가 막히면 다시 지표면위로 솟아올라 흐르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복류천'** 이라고 합니다.

**– 포트홀**

석회암 바닥의 작은 틈으로 모래와 자갈이 들어가서 빠르게 흘러 내리는 물과 함께 소용돌이치게 되고 암석을 깎아서 돌개구멍이 생기는데 이 현상을 포트홀 이라고 합니다.

**· 검룡소의 여름꽃**

**– 기린초**



여러분 오른쪽 탐방로를 보시면 노란색 꽃이 보이시나요?
기린초 라는 꽃으로 월동 상태에서 봄에 자라므로 다른 풀보다 다소 일찍 자라구요. 여름에는 줄기의 끝에서 꽃봉오리가 생기면서 노란색 꽃이 피는데 지금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기린초 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 들어보실래요?
기린초 라는 이름처럼 기린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이 긴 동물 기린을 닮았나요? 글쎄요!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 사슴과 같은 몸에 소의 꼬리를 달고 발굽은 말과 흡사하며
빛깔은 오색을 띄는 상상속의 기린이구요 기린초의 잎 모양이 바로 이 상상속의 기린의 뿔과 같이 생겼다 하여 기린초 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 큰뱀무**



기린초 옆에 또 다른 노란색 꽃이 보이는데 이 꽃은 큰뱀무 라는 꽃입니다.
뱀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자라고 잎이 우리가 먹는 무 잎을 닮았다고 하여 뱀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뱀무에 비하여 개체가 크다는 의미에서 큰 뱀무 라는 이름이 유래 되었다는군요.

**– 여우오줌풀**

여기 오백원짜리 동전 크기정도의 노란 꽃이 피어있네요. 꼭 해바라기 꽃을 흡사 닮았는데 이 꽃은 여우오줌풀입니다.





우리가 탐방을 하다가 보면 노루오줌 풀, 쥐오줌 풀, 여우오줌풀 등의 야생화를 보게 되는데 이름을 보면 다 오줌풀 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줌풀 이름을 가진 식물들은 그 이름처럼 뿌리에서 노루오줌 냄새가 나서 노루오줌풀, 또는 쥐오줌 냄새가나서 쥐오줌풀, 여우오줌냄새가 나서 여우오줌풀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합니다.

**– 짚신나물**

자 여기 또 다른 노란색 꽃이 보이시죠!





꼭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이시기에 군락을 이루는 식물들 중 하나인데요 이 식물은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니는 길옆에 주로 자생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옷이나 짐승의 털에 붙어서 사방으로 옮겨 다니며 종종번식을 한답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열매에 붙어있는 갈고리 모양의 작은 솜털이 옛날 선조들이 짚신을 신고 다니면 그곳에 잘 달라붙는다 하여 짚신나물 이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른 봄 싹이 트는 모습은 용의 이빨 같다고 하여 '용아초' 라고도 합니다.

**· 세심탐방지원센터**

– 이곳은 세심탐방지원센터 앞입니다. 양쪽 길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길은 매년 4월20일에서 9월30일까지 금대봉~대덕산 탐방예약제구간으로 통하는 입구입니다. 하루에 인터넷으로 300명으로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을 통과하게 되면 대덕산을 거쳐 분주령을 지나게 되고 두문동재탐방지원센터로 도달하게 되는 탐방예약제 구간입니다 산행시간은 약9km로 4시간에서 4시간30분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길을 보시면 세심교라는 다리가 보이시죠.

검룡소를 가기위해 꼭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죠.

세심교는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이곳의 다리를 건너기전에 오늘 하루의 마음을 한번 쯤 되새겨 보시면 어떨까요? 왼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에 이곳에 오시기전 근심, 걱정의 마음을  모두 깨끗이 흘러 보내고 이곳 세심교를 건너면 오늘의 여행은 더없이 보람 있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 다래나무와 개다래나무**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나뭇잎 들을 보세요 얼룩덜룩한 것이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뭇잎과는 차이가 있죠? 네~ 지금 앞에 보이는 나무는 개다래나무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래가 열리는 나무와는 다른 개다래나무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잎은 왜 저렇게 얼룩이 생 긴 걸까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종족 번식을 해야만 하는데 개다래나무는 잎은 크고 꽃은 작고 밑에 피어있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곤충들의 매개체가 수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꽃이 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에 나에게 오라는 표시를 알리기 위해서 마치 꽃처럼 보이게 잎을 변색을 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수정이 끝나면 저 잎들은 다시 일반적인 나뭇잎으

로 처음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죠.

**– 다릅나무**

이곳 검룡소를 탐방하시는 동안 여기 보이는 이 나무가 종종 보이셨죠? 수피가 특이하게 생긴 이 나무는 다릅나무입니다.




다릅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나무이며 열매 꼬투리가 콩처럼 콩 까투리가 있어서 콩과 집안에 속한답니다. 그런데 특이한건 콩과는 관목으로써 작은 나무이고 교목은 큰나무 인데 콩과인 다릅나무는 작은 나무인 관목이 아닌 키가 큰 교목입니다. 또 나무속을 잘라서 보게 되면 다른 나무들과 달리 속이 새까맣기 때문에 나무들 사이에서는 너는 다르다 해서 다릅나무 라고 했답니다. 또한 다릅나무는 단단하기 때문에 교구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흔화석**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돌을 한번 보시겠어요? 흔히 보이는 돌처럼 보이지만 만져보시고 자세히 보시면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생흔화석' 이라고 하는데 예전 이곳은 적도 부근의 바닷가였던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그때 바닷가의 살아있는 생물들이 바닷가 갯벌에 기어 다니던 흔적들로써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였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4~5억만년 전 고생대의 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검룡소 도착**

**– 검룡소의 전설**

여러분 드디어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솟은 검룡수(劍龍水) 는 사계절 내내 9°c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물이 흐르는 주변의 바위엔 푸른 이끼가 자라고 있는데 이는 청정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검룡소의 물은 계단 형태의 암반을 따라 물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자국은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몸부림 친 흔적이라고 하는데 왜 이무기가 이곳에서 몸부림을 쳤을까요? 제가 오늘 출발 전에 이곳 검룡소의 용소는 용의전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용의 전설은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와 이곳에 이르러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곳이 없음을 알고 이곳에서 용이 되기 위한 수련을 쌓던 중 인근마을에서 물을 마시러 오는 소들을 잡아먹자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검룡소를 메워버렸고 이때 이무기가 못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 친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전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이러한  계단형태의 암반을 "층리"라고 부릅니다. 즉 금이 간 암석 사이로 생물의 유해나 파편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구조인거죠.

이렇게 강하게 흘러내리는 물살은 규칙적으로 약한 층리면을 따라 암석을 부서지게 해서 계단식의 통로를 만들게 되었고 이 형태가 마치 용이 지나간 모습과 흡사해서 생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메워진 소는 그 후 1980년대에 국립지리원에서 검룡소를 한강의 발원지로 공식 인정하면서 이곳 못을 다시 복원하고 검룡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곳 태백은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가 있다면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이 있는데  이번 여행에서 조금의 시간을 내셔서 낙동강 발원지도 함께 탐방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시기전 이곳 태백에서 유명한 물 닭갈비와 그리고 서해에 살던 이무기도 좋아하던 태백의 한우를 한번 드셔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이곳을 방문하셨을 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해설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임여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개요

| | | | |
|---|---|---|---|
| 해 설 주 제 | **검룡소의 봄** | | |
| 해 설 소 재 | 검룡소의 생태및 나무.꽃 이야기 | | |
| 해 설 대 상 | 성인및중.고등학생 | 해설지점 | 검룡소일원 |
| 해 설 재 료 | 해설교보재.루페.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 운 영 자 | 자연환경 해설사 이영희 | | |

# 해설 시나리오

안녕하십니까?
태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태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립공원에 오셨으니깐 간단하게 태백산국립공원에 대해 소개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태백산은 2016년 8월 22일에 22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신라시대부터 약 1800년간 하늘에 제를 지내던 천제단이 있고, 살아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500년 된 주목의 군락지가 있으며 한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인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를 탐방하시겠습니다.
탐방하시는 동안 혹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제게 비상약이 있으니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한강발원지 검룡소 입구입니다. 검룡소는 이곳에서 1.3KM 위에 있구요, 여기서 검룡소 물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한강은 통상 큰강이란 뜻이예요.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여기는 바로 남한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남한강은 길이가 514.4KM.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북한강은 481KM .남한강이 33KM 더 길어서 남한강이 본류가 되고, 북한강이 지류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물이 정선.영월. 단양, 충주를 거쳐 경기도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을 만나 한강을 만들고 서울로 들어가 흘러 김포, 월곡, 서해까지 흘러가는 514.4KM ,1300 리의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3 KM 가는 이 구간이 126만평 생태경관보존지역이고, 희귀식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 한계령풀, 대성쓴풀 등 천연기념물도 있겠죠?
천연기념물 중에서 매가 있잖아요? 참매~~ 매는 굉장히 영특한 동물(조류)이예요.
매가 쭉~~날아 새나 쥐를 잡으려고 내려오다가 새가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으면 안잡아 먹어요. 또 내려갔는데 지나가는 쥐가 새끼를 가졌으면 안잡아 먹어요. 바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우리나라 새(매)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되죠?
이 주위에는 동식물도 많고 멧돼지도 많아요. 꿩도 많고~~자~~이쪽의 표지석을 볼게요.
이표지석은 퇴적암중에서 사암이 변성된 규암이예요.
검룡소의 검자는 검소할검 자이지만 이두문자로는 신령스런 검자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검룡소는 신령스런 용이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령스런 용을 만나러 가볼게요.
지금부터 1.3 KM 구간은 숲길이라서 고즈넉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렇습니다.
발원지 위에는 발원샘이 있어요.발원샘은 물이 솟아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하구요, 발원지는 물이 솟아나면 여기서부터 서해바다까지 쭉 흐르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 1.3 KM 구간에 물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럼 발원지가 아니라야 되잖아요? 하지만 발원지로 인정해줍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서울의 북한산은 바로 화성암에 석영이나 장석이 많이 들어가서 화강암이 되었어요. 화강암은 매우 단단해서 절대 구멍이 안생겨요. 하지만 이쪽지방은 99.9 % 석회암으로 되어있습니다. 석회암은 성분이 탄산칼슘이죠. 바로 탄산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지반이 약한 곳으로 물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밑으로 동굴을 형성하며 물이 흘러 갑니다. 가다가 앞이 막히면 다시 위로 올라오죠~ 그런 구간이 이곳에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복류천이라고 하면서 물길이 흐르는 것을 인정해줍니다.여기서 흐르는 물이 삼척 환선굴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 자~~보십시오. 숲은 아늑하죠? 잘 아시겠지만 숲은 수풀의 줄임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죠. 나무와 풀이 빽빽이 들어선 것을 말하구요, 나무는 통상 부피성장을 해요, 굵죠? 풀은 마디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인데, 사람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뱉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요.
그런데 1핵타아르(약 3천평)정도의 숲에서 연간 뱉어내는 산소가 약 12톤, 먹는 이산화탄소가 16톤 된다고 해요. 사람 44명이 1년간 숨쉴 수 있는 양의 산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숲을 가꾸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여기서 퀴즈
산에 갔는데 산삼을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년에 다시 와야지 하고

두고 왔는데 다음해에 가봤더니 산삼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캐어 갔을까요? 아니예요. 사람이 만진 산삼은 스트레스 받아서 3년 정도 휴삼을 한답니다. 싹을 안틔워요.그럼 산삼은 언제 캐야 가장 좋을까요?
ㅎㅎ~ 보는 즉시 캐야 가장 좋죠~~
*일본잎갈나무
이곳이 검룡소 가는길 1.3KM 구간중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오신 고민이랑 마음의 짐 있으시면 이곳에다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네~~바로 일본잎갈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이곳에 군락을 아룬것은 태백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합니다. 태백은 작은 산촌마을이었습니다. 1930년 석탄개발이 시작되면서 탄광에서 쓰일 갱목으로 이 지역에서 자생하던 소나무. 참나무들이 무차별로 베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빨리 자라고 곧게 자라는 이 나무가 심어진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빨리 키워서 다시 탄광의 갱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석탄합리화사업으로 폐광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게 되면서 이 일본잎갈나무가 그대로 자연자원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생흔화석
이곳을 봐주시겠어요. 이곳은 생흔화석이라 합니다.
생흔화석은 살아있는 생물들이 얕은 바닷가의 갯벌에서 기어 다니던 흔적이예요.
예전엔 이곳이 오스트리아 부근의 바닷가였었답니다. 지구 판의 변화로 이 지역이 약1억 5천만년전에 융기되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다왔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판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검룡소는 물이 나오는 수굴입니다. 굴속에서 물이 나오죠.
물의 양은 하루 약 2천에서 3천톤정도 나오구요, 물의 온도는 일정하게 9도를 유지합니다 .검룡소는 4억5천만년전에 만들어진 기반암석이 바로 융기해 위로 올라오면서 약1억 5천만년 동안 돌 위로 물이 흐르면서 기반이 약한 곳이 조금씩 파여요.
파이면 물이 한번씩 더 돌아 가겠죠 ? 이렇게 돌이 움푹 파인 곳에 자갈이나 모래가 들어가 물과 같이 돌면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파여서 예쁘게 폭포를 만들면서
내려오죠. 아스팔트가 파이면 포토홀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돌개구멍 이라고 합니다. 이 물이 바로 돌개구멍의 폭포로 30M 내려오는 구간이 아름답다고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포의 이끼사이에 백두산에서만 자라는 나도범의귀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물길이 시작되는 발원지입니다 하지만 물이솟는 모습은 보이질 않죠.조용히. 은밀히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물길을 보면 많은 양의 물이 솟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입니다.
이곳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고픈 마음에 최상류를 찾아 이곳으로 왔는데 수련을 하던 중 배고픔을

참지 못해 이곳으로 물을 마시러온 마을의 소를 잡아먹었답니다. 그런데 물고기만 먹던 이무기가 고기 맛을 보니 너무 맛있어서 여러 마리를 먹게 되었어요. 자꾸 소가 없어지자 마을사람들이 관찰하던 중 이무기가 먹는 것을 보게 되고, 화가난 마을 사람들이 이무기가 드나들던 구멍을 메워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이 구멍을 메워버렸다고 승천을 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올라가겠죠~~
용이 너무 맛있는 소고기맛을 못잊어서 안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곳입니다.
그래서인지 태백의 소고기 맛이 기가막히게 맛있다고 합니다. 소고기 안드신 분은 꼭 맛보고 가세요~~
여기서 퀴즈~~
발원지는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선물이 있습니다. 고민좀 해봐주세요~~
_물이 솟아나야 합니다.
_1년 365일 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높은곳과 가장 먼곳을 발원지라 합니다.
두 번째~~
한강은 몇 킬러미터를 가고 있을까요? ( 514.4km)
세 번째~~
태백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국립공원일까요? (22번째 국립공원)
* 어머~~여기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하얀꽃과 분홍색꽃.
이 식물은 노루귀예요. 이른봄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데 지금 보이는 흰색과 분홍색은 꽃잎처럼 보이지만 꽃잎이 아닙니다. 꽃받침 조각이예요. 노루귀는 꽃이 피고 잎이 나중에 나오는데 잎이 나올 때는 세 가닥으로 말려서 나오며 털이 돋는 모습이 마치 노루의 귀를 닮아서 노루귀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또한 이식물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꽃의 색깔이 다르게 피며, 눈과 얼음을 뚫고 나온다 하여 파설초라고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검룡소 탐방을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느끼신 점이나 저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태백산국립공원을 또 찾아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은 일정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table>
<tr><th colspan="5">프로그램 운영 시나리오</th></tr>
<tr><td>프로그램 명</td><td colspan="4">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를 가다</td></tr>
<tr><td>교육목적</td><td colspan="4">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를 탐방하며 그 의미와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본다.<br>숲을 거닐면서 숲이 주는 여유와 중요함을 상기한다.</td></tr>
<tr><td rowspan="4">개요</td><td>진행일정</td><td>사계절</td><td>장소</td><td>검룡소</td></tr>
<tr><td>참석대상</td><td>성인</td><td>인원</td><td>20명 내외</td></tr>
<tr><td>교육시간</td><td>1시간</td><td>준비물</td><td>루페, 도토리, 사진,<br>엽서, 즉석카메라,<br>음향기기</td></tr>
<tr><td colspan="4">교육내용<br>- 검룡소의 의미와 물의 소중함에 대하여 알아보기<br>- 검룡소 오름길의 식생 알아보기<br>- 숲의 중요성을 알아보며 숲이 주는 여유를 느끼며 엽서쓰기 체험하기</td></tr>
<tr><td rowspan="18">프로그램<br>일정표</td><td>구분</td><td colspan="3">일정내용</td></tr>
<tr><td>동기 유발</td><td colspan="3">1. 인사 및 국립공원 소개</td></tr>
<tr><td rowspan="15">해설 주제</td><td colspan="3">2. 검룡소 소개</td></tr>
<tr><td colspan="3">3. 생강나무</td></tr>
<tr><td colspan="3">4. 석회암동굴과 검룡소 계곡</td></tr>
<tr><td colspan="3">5. 숲과 산소</td></tr>
<tr><td colspan="3">6. 짚신나물과 그 씨앗의 전파 방법</td></tr>
<tr><td colspan="3">7. 신갈나무와 다람쥐</td></tr>
<tr><td colspan="3">8. 물푸레나무</td></tr>
<tr><td colspan="3">9. 일본잎갈나무</td></tr>
<tr><td colspan="3">10. 삼림욕</td></tr>
<tr><td colspan="3">11. 회목나무</td></tr>
<tr><td colspan="3">12. 함박꽃나무</td></tr>
<tr><td colspan="3">13. 여우오줌</td></tr>
<tr><td colspan="3">14. 검룡소 전설과 물의 소중함</td></tr>
<tr><td colspan="3">15. 숲의 여유와 엽서쓰기</td></tr>
<tr><td>마무리</td><td colspan="3">16. 마무리</td></tr>
</table>

# 해 설 시 나 리 오

<table>
<tr><th colspan="5">프로그램 운영 시나리오</th></tr>
<tr><td>프로그램명</td><td colspan="4">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를 가다.</td></tr>
<tr><td>교육 목적</td><td colspan="4">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를 탐방하며 그 의미와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 본다.<br>숲을 거닐면서 숲이 주는 여유와 중요함을 상기한다.</td></tr>
<tr><td rowspan="3">개요</td><td>진행일정</td><td>사계절</td><td>활동장소</td><td>검룡소</td></tr>
<tr><td>참석대상</td><td>성인</td><td>참가인원</td><td>20명 내외</td></tr>
<tr><td>교육시간</td><td>1시간</td><td>준 비 물</td><td>루페, 도토리, 사진, 엽서, 즉석카메라, 음향기기</td></tr>
<tr><td>유의 사항</td><td colspan="4">검룡소 구간의 물은 상수원 보호구역, 명승지이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br>탐방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td></tr>
<tr><th>단계</th><th colspan="3">교육 내용</th><th>비고</th></tr>
<tr><td>1. 인사 및<br>국립공원 소개</td><td colspan="3">- 인사 -<br>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검룡소를 탐방하며 해설을 진행할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신은주입니다.<br>만나서 반갑습니다.<br>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서 오셨나요?(대답유도)<br>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오셨던지 오늘은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좀 더 여유롭게, 마음을 편히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br><br>-국립공원 소개-<br>탐방하기 전에 국립공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br>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br>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 지리산이 처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 8월 22일, 이 곳 태백산국립공원이 22번째 국립</td><td></td></tr>
</table>

| | | |
|---|---|---|
| |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br>태백산은 문수봉에 하얀 자갈이 멀리서 보면 흰 눈이 쌓인 것처럼 보여 크고 흰 산이라는 뜻에서 태백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br>태백산국립공원은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검룡소 뿐만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하늘에 제를 지내던 천제단과,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500년된 주목군락지가 있으며,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인 금대봉, 열목어 최남단 서식지로 가치가 큰 봉화 백천계곡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소가 뛰어난 생태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
| 2. 검룡소 소개 | - 검룡소 표지석에서 -<br>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이 곳 검룡소입니다.<br>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인데요. 발원지란 물줄기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금대봉 기슭에 있는 제당굼샘과 고목나무샘, 물골의 물구녕 석간수와 예터굼에서 솟아나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검룡소에서 다시 솟아납니다. 그렇게 검룡소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514km를 흘러 인천 앞바다에서 서해로 합류하게 됩니다.<br>검룡소의 물은 사계절 9도로 일정하고 하루 약 3천톤의 맑은 물이 솟아오른답니다.<br>지금부터 우리는 검룡소 오름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검룡소까지 약 1.3km 구간을 가게 됩니다.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입구에서 세심탐방지원센터를 지나 검룡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br>대체적으로 길은 완만하여 산책하듯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br>검룡소 구간에 흐르는 모든 물은 상수원보호구역, 명승지로써 보호되고 있으므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탐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br>그럼, 지금부터 검룡소 오름길 탐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
| 3. 생강나무 | -표지석 입구-<br>잠시 이 나무를 봐주세요. 이 나무의 이름은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는 잎과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잎을 살짝 비비면 향긋한 생강 냄새가 납니다. 옛날에 | |

| | | |
|---|---|---|
| | 생강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무의 잎과 가지를 말려 생강처럼 양념으로 쓰기도 했다네요.<br>꽃은 이른 봄에 잎이 나오기 전에 피는데요.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가장 일찍 꽃이 피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br>열매는 9~10월에 검정색으로 익고 열매는 기름을 짜서 쓰는데 동백기름과 비슷합니다. 동백나무가 자라지 않는 추운 북부 지방에서는 생강나무를 동백나무라고 했습니다. 생강나무에서 짠 기름도 동백기름이라 하고 동백기름처럼 머리에 바르는데 흰 머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등잔 기름으로도 씁니다.<br>잠시 생강나무의 잎을 봐주세요. 어떤가요? 잎의 모양이 공룡 발바닥모양과 비슷하지 않나요? 또한 한 가지에서 예쁜 하트 모양의 잎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요?<br>(사진) 사진 속의 꽃이 바로 생강나무 꽃입니다. 산수유와 비슷해 보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수유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비슷한 시기에 꽃이 피고 꽃의 생김새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생강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자생식물이고 산수유나무는 중국에서 들여온 귀화식물입니다. 산수유나무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며, 생강나무는 산에서 자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생강나무는 나무껍질이 매끈하며 산수유나무는 나무껍질이 불규칙하게 벗겨져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 |
| **4. 석회암동굴과 검룡소 계곡** | - 검룡소 계곡 표지판 앞-<br>잠시 계곡을 살펴봐주시겠습니까? 검룡소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회암은 빗물에 잘 녹아서 동굴이 잘 만들어집니다.<br>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은 지하의 통로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표면으로 나와서 흐르기도 합니다.<br>표지판의 그림을 살펴보시면 표면에 물이 흐르는 곳과 흐르는 물이 지하 통로로 사라지는 곳이 보이지요? 그래서 검룡소 계곡은 물이 흐르는 지점과 물이 잘 흐르지 않는 지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
| **5.숲과 산소** | -산돌배나무 벤치 근처-<br>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숲길을 걷고 계십니다. | |

| | | |
|---|---|---|
| |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저와 함께 심호흡을 크게 해보도록 해요.<br>한 번(호흡), 두 번(호흡)<br>어떠십니까?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br>사람은 이 신선한 공기 중에서도 산소가 필요합니다.<br>특히 우리 뇌에는 산소가 4~6분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해지게 되지요. 산소는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br>산소는 자연이 만듭니다. 특히 울창한 숲이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나무는 대기 중에 매우 0.03퍼센트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당분을 얻고 다시 당분을 합성하여 셀룰로오스를 만듭니다. 결국 이것이 함께 모여 우리가 사용하는 목재가 되지요. 이러한 과정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 나무는 산소를 외부로 뿜어내며 사람과 동물은 그것을 호흡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br>아마존의 열대우림은 특히 산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책이나 뉴스 등을 통하여 많이 들어보셨지요?<br>그 열대우림이 개발목적으로 2초마다 축구장 한 개의 면적만큼 사라진다고 합니다.<br>우리가 편해지기 위해 숲을 파괴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br>잠시나마 이곳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자연과 친해지고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 **6. 짚신나물과<br>그 씨앗의 전파방법** | -산돌배나무 벤치 근처 표지판-<br>눈앞에 작고 노란 꽃이 보이십니까?<br>이 풀의 이름은 짚신나물이랍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 짚신을 신고 다녔을 때 짚신에 붙어 이곳저곳을 붙어 다녔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br>짚신나물에는 갈고리 같은 털이 있어서 사람들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쉽게 붙게 되며 그로 인해 여기저기 퍼져 나가게 된답니다.<br>식물도 사람처럼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둘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서로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식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을 운반해 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동이 자유로운 바람이 | |

| | | |
|---|---|---|
| | 나, 동물, 물 등을 운반해 줄 대상으로 이용을 합니다.<br>특히 짚신나물 말고도 도깨비바늘의 씨앗은 동물 몸에 붙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 바람에 의한 씨앗의 전파는 효율적이긴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다 진화된 씨앗 전파 방법이 이동이 자유로운 동물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씨앗을 멀리 나를 수 있으며 적은 수량의 씨앗으로도 성공률이 높은 전파 방법입니다.<br>식물의 씨앗 전파를 통하여 우리는 식물의 생존을 위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 |
| **7. 신갈나무와 다람쥐** | -세심교 전 지점-<br>(도토리를 꺼낸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br>(대답) 맞습니다. 도토리입니다.<br>그 중에서도 이 도토리는 신갈나무의 도토리입니다.<br>지금 여러분 앞에 신갈나무가 있습니다.<br>신갈나무는 참나무의 한 종류로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는 참나무라고 부른답니다.<br>참나무는 여섯가지 종류가 있는데요.<br>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신갈나무 외에도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가 있습니다.<br>그 중에서도 태백산에는 대부분 신갈나무가 자라고 있답니다.<br>우리나라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신갈나무는 다른 참나무와 달리 해발 1800m의 높은 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은 꼭대기에서 나뭇잎이 큰 참나무를 보았다면 대부분이 신갈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br>옛날에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말? 가마?<br>말이나 가마는 높은 벼슬아치나 부자인 양반들이 탈 수 있었답니다.<br>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가난한 선비들은 직접 몇날 며칠을 걸어야 했습니다.<br>봇짐을 메고 길을 갈 때에는 짚으로 삼은 짚신을 꼭 준비해서 가야 했답니다.<br>험한 산길을 걷다보면 짚신의 바닥이 해져서 신기가 힘들었는데요. | |

| | | |
|---|---|---|
| | 신갈나무의 잎은 짚신 안에 딱 맞을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미끄러지지 않아서 짚신 바닥에 깔기에 안성맞춤 이었습니다.<br>그래서 짚신 바닥에 신갈나무 잎을 깔게 되었고, '신을 간다'는 뜻에서 신갈나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답니다.<br>또한 신갈나무의 목재는 다양한 기구를 만들거나 땔감이나 숯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br>다시, 제 손의 도토리가 아직 보이시나요?<br>이 도토리는 사람들은 묵을 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곳곳에 보이는 다람쥐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요. 다람쥐나 청설모는 도토리를 입에 물고 수십미터에서 수십킬로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고, 참나무가 자라는 곳보다 더 높은 고지대에도 갑니다. 또한 겨울철 식량을 저축하기 위해 도토리를 땅속에 묻어 놓지요. 그런데 다람쥐와 청설모는 기억력이 좋지 못하여 자신이 어디에 도토리를 묻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람쥐나 청설모는 땅에 묻은 도토리의 95% 이상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땅에 묻힌 도토리는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지요.<br>반면 쓰러진 나무나 바위, 낙엽 위로 떨어진 도토리들은 착지를 잘못한 탓에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 해도 지탱하고 자랄 흙이 없기 때문입니다.<br>도토리는 다람쥐의 먹이가 되고, 다람쥐 또한 도토리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br>또한, 도토리는 산에 있는 모든 동물의 먹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 도토리는 산의 동물들을 위해 양보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 |
| **8. 물푸레나무** | - 세심교 도착 전-<br>잠시 이 특이한 껍질을 가진 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br>어떻게 보이나요? 얼룩덜룩 무늬가 보이지 않으시나요?<br>이 나무는 고대 그리스 전사인 아킬레스가 창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br>과연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br>이 나무는 물푸레나무라고 합니다.<br>이름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줄기를 물에 넣으면 물이 파랗게 변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br>물푸레나무를 태운 잿물로 옷감을 물들이면 푸르스름한 잿빛이 | |

| | | |
|---|---|---|
| | 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절에서는 이 나무로 옷을 많이 물들였다고 합니다.<br>물푸레나무는 물에 적셔 구부리면 잘 휘는데다 바짝 마르면 단단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당의 훈장님들이 회초리로 쓰기도 했는데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은 고향에 돌아와 먼저 물푸레나무에게 큰 절을 올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또한 단단한데다 무거워서 도끼자루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품질이 좋은 나무라 소문이 나서 농기구나 장총 손잡이, 악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농기구용 목재를 얻기 위해 마을에 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br>여기에서 퀴즈,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하여 겨울에 물푸레나무로 만든 이 신발을 신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대답) 네, 정답은 '설피'입니다.<br>물푸레나무는 이름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쓰임도 정말 다양하여 우리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 |
| **9. 일본잎갈나무** | -세심초소를 바로 지나서-<br>이 다리는 세심교입니다.<br>이곳에서부터는 핸드폰이 작동이 잘 되지 않아 통화가 힘듭니다.<br>잠시 일상의 바쁨은 잊어버리시고 숲을 즐겨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br>잠시 주위를 둘러봐주세요.<br>소나무와 비슷한 나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br>이 나무는 일본잎갈나무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낙엽송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2~3년마다 잎이 떨어지므로 항상 푸르게 보이지요?<br>그러나 일본잎갈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이 누렇게 물들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여 잎을 간다고 하여 잎갈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br>이 나무는 1904년 일본에서 처음 들여왔습니다. 그 뒤에 나무가 없는 산에 가장 많이 심어왔는데요. 무척 빨리 자라기 때문에 우리 산을 푸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 나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지표면 가까이에 퍼져나가는 얕은 뿌리이고 빠르게 생장하기 때문에 비탈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커지면 커질수록 쉽게 쓰러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 |

| | | |
|---|---|---|
| | 태백산에는 유독 일본잎갈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br>그 이유는 바로 태백시의 아픈 역사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백은 1930년대부터 광산이 개발되어 전국 석탄 생산량의 30%가 이 지역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br>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갱도를 튼튼하게 받쳐줄 갱목이 필요했습니다.<br>이 갱목으로 사용되는 나무는 보통 튼튼하고 곧게 뻗은 소나무나 참나무류였습니다.<br>그 때부터 이 지역에서 많이 자랐던 소나무, 참나무가 벌목이 되었고 그 빈자리를 대신하여 1970년대에 가장 빨리 자라는 일본잎갈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많은 일본잎갈나무 군락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 |
| **10. 삼림욕** | - 일본잎갈나무 숲<br><br>이 지점은 한적하고, 숲을 즐기기에는 좋은 곳입니다.<br>잠시 일상은 잊으시고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느끼시는 시간을 가져보심은 어떨까요? (음악)<br>음악을 들으며 숲에서의 목욕을 즐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br>삼림욕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숲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적당히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br>숲에 오시니 어떠신가요?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즐거워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나무에서 내뿜고 있는 피톤치드란 성분 때문입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 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산림의 향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피톤치드는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br>피톤치드는 숲 속의 각종 균이나 미생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휘발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숲에서 요양하는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br>1900년대 초 미국에는 결핵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환자를 수용할 병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병원 뒤뜰에 임시로 텐트 병동을 만들어 환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숲 속에 수용했던 환자들의 | |

| | | |
|---|---|---|
| | 치료효과가 병원 안에 있던 환자들 보다 훨씬 높았으며, 병원에서 이 사실을 학술지에 보고한 이후 숲의 치료효과가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br>들려오는 음악과 함께 여러분도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잠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
| **11. 회목나무** | -세심교 300m 지점<br>잠시 이 곳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작고 귀여운 꽃이 표면에 딱 붙어있는 나무가 있답니다. 처음 본 순간 작고 귀여운 꽃이 나뭇잎 표면에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회목나무는 나뭇잎 위에서 꽃이 핍니다.<br>사진을 보시면 나뭇잎 위에 작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꽃입니다.<br>사진 속 꽃은 6~7월 사이 적갈색으로 피어납니다.<br>어떤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br>이 나무는 아쉽게도 깊은 산에서 드물게 자라기 때문에 쉽게 만나기 어려운 나무랍니다. 특히 극동아시아 지역인 우리나라와 만주, 시베리아, 일본 등에서 자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멸종되다시피 하여 볼 수 없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멸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 **12. 함박꽃나무** | -세심교 300m지점 회목나무 위<br>우리 잠시 사진 속 하얀 꽃을 볼까요? 어때요? 크고 예쁜 하얀 꽃이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br>이 꽃의 이름은 함박꽃이라고 합니다.<br>이 꽃은 다른 이름으로 산목련 이라고도 해요. 또한 이 꽃은 우리 태백시를 상징하는 대표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와 분단되어 있는 북한의 상징꽃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피는 목련은 봄에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지만, 함박꽃은 잎이 먼저 나고 5월의 끝자락에서 6월의 시작점이 되어야 꽃이 핀답니다.<br>함박꽃이 지고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로 중국에서는 매운 향신료를 만들어서 씁니다. 참, 신기한 꽃이지요? | |
| **13. 여우오줌** | - 세심교 400m 지점 | |

| | | |
|---|---|---|
| | (사진) 잠시, 주위를 둘러봐주세요.<br>커다란 잎들이 보이지 않으시나요?<br>그리고 마치 해바라기가 자라다 말고 진 듯한 느낌을 주는 풀이 우리 주변에 있네요.<br>이 풀의 이름은 여우오줌입니다.<br>이름이 참 특이하지요? 여우오줌이라는 이름은 8~9월에 피는 노란 꽃에서 여우 오줌같은 냄새가 난다는 데서 붙은 이름입니다.<br>다른 이름으로는 왕담배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국화과의 다른 담배풀보다 키도 크고 줄기도 굵고 잎이나 꽃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br>오줌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은 여우오줌 말고도 쥐오줌, 노루오줌 등이 있습니다. 금대봉이나 당골로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답니다. | |
| **14. 검룡소 전설과 물의 소중함** | - 검룡소 도착<br>이 곳이 바로 검룡소입니다.<br>둘레 20m 남짓한 소 한가운데 1억 5천만년 전 형성된 깊이를 알 수 없는 석회동굴이 있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곳의 물은 사계절 9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하루 약 3천톤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의 추운 날씨에도 얼어붙은 적이 없답니다.<br>오랜 세월동안 흐른 물줄기 때문에 깊이 약 1m~1.5m 넓이 약 1~2m에 이르는 암반이 구불구불 파여 그리로 물이 흐르는데 마치 용이 용트림 하는 것 같습니다.<br>이 검룡소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br>옛날, 서해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와 이 소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지금의 폭포라는 것이며, 이무기가 부근에서 풀을 뜯다가 물을 먹으러 온 소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검룡소를 마을 주민들이 메워버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br>참으로 신비한 전설이지요?<br>이 곳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길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수질 | |

| | | |
|---|---|---|
| | 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br>수질오염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 수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식수마저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수질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오늘날 연간 약 800만 명이 수인성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약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물을 살리는 일은 곧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지요.<br>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한강의 발원지인 이 검룡소의 맑은 물을 보시면서 잠시나마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 **15. 숲의 여유와 엽서쓰기** | - 검룡소<br>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이 작동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의 문명과 일상에서 벗어난 장소이지요. 이곳에서는 일상에 쫓기지 않고 잠시나마 문명과도 벗어나서 숲이 주는 느림과 여유를 즐기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br>우리는 발전된 기술로 인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또한 손편지 대신 메일이나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br>여러분, 지금부터는 마음껏 사진을 찍고 시간을 즐기셔도 좋고, 또한 원하시는 탐방객 여러분께는 핸드폰 사진이 아닌 즉석 사진을 찍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핸드폰 문자가 아닌 손으로 지인들에게 직접 엽서를 쓰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손글씨로 엽서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br>여러분이 써 주신 엽서는 2주가 흐르면 도착할 것입니다. | |
| **16. 마무리** | 오늘 탐방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일상을 벗어나 숲을 잠시나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만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br>남은 일정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br>저는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신은주였습니다. | |